

그와 시대의 손때가 묻은 고서,

40년 만의 외출

‘고서들의 과거사’ … 책을 통해 우리의 ‘과거사’ 반추

“어릴 적부터 책을 쥐어주시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중학생이 된 후 아버지에게서 받은 책을 버리지 않고 모은 것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은사(하동호 선생·작고)를 따라다니면서 헌 책을 찾고 모으는 즐거움을 알았어요. 이런 전시를 할 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모아온 책이 세월이 지나니 자연 고서가 됐네요. 당시에는 더 없이 파격적이라고 느끼던 신간이었는 데 말이죠.”

그는 ‘버릇’ 처럼 책을 모았다고 했다. 이미 그의 몸엔 고서에 대한 애착 그 이상의 ‘집착’이 배어 있다. 1993년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모범장서가로 선정돼 그런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그를 마지막으로 모범장서가를 위한 시상 자체가 없어졌다. 장서가라고 할 만한 명분이 없거나 스스로 나서서 사람이 없어 절로 소멸된 것이다. “모범장서가로 선정되기 위해 추천서류 뒤에 자천도서 100권을 첨부하고 엄격하고 꼼꼼한 심사에 응했던 당시를 생각하면 애석한 현실”이라고 했다.

전시회를 기획한 것은 그 때문이다. ‘고서들의 과거사’라는 이름에는 전시장을 찾은 손님들이 자신과 동시대를 지냈던 책을 통해 본인의 과거사를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또한 대형서점이 대접받고 헌책방과 고물상은 홀대당하는 도시 풍경을 일깨우는 뜻도 있다. 그가 고서를 찾아다니는 일에 더욱 열중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1960년대 가장 초보적인 유통수단이었던 리어카에서 발전한 것이 고물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웬만큼 책의 분류가 이뤄진 헌책방이 생긴 것이죠. 어느 곳이 됐든 수북한 책 사이로 먼지더미를 뒤적이다보면 생각지 못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쳇말로 ‘왕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수집한 책과 당시 나온 잡지를 모아 온 세월이 벌써 40년이네요.”

대학에서 그는 미술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엔 광고계에 발을 들였다. 카피라이터 경력만도 15년이요 그 후부터는 방송계와 출판홍보, 말년에는 방송심의를 담당했다. 30년간의 직장생활, 그리고 직업과 배경이 바뀌어도 고서를 모으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그 일이 내 삶의 일부”라는 그다. 그렇게 해서 수집한 고서가 4,000여 권. 모두를 전시할 수 없어 문학서적과 사회비평서적 등 400여 권을 추렸다. 단행본, 잡지류, 특별전시물마다 그와 시대의 손때가 묻어 있다.

40년동안 4,000여 권 고서 모아, 400여 권 추려 전시

“1955년, 미국동군 사령부에서 발간한 월간지 <자유의 빛>은 전쟁이 끝나고 과도기에 들어선 한국에 무료로 배포한 잡지입니다. 대중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울 알리고 세계를 읽고 배울 수 있게 한 미국의 ‘배려’였지요. ‘의무를 다했다’며 1971년 6월호로 중단됐지만,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등한시 됐던 이 잡지를 창간호부터 모아 한 해치씩 묶어 놓은 것을 이번에 전시하게 됐습니다.”

미처 모으지 못한 결호는 대학생이 된 후 전국의 헌책방과 과자상 등을 뒤져가며 사 모았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결호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1963년부터 5년에 걸쳐 한국일보에 연재된 월탄 박종화 선생의 <월탄 삼국지>도 신문물 오리고 추려 세 권의 책으로 만드는 데 장장 20년이 걸

기획 특성에 따라 짧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십 년 이상.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그러나 책이 서점에 나와 독자들에게 잊혀져 파지가 되기까지는 평균 한 달 이내다. 인간의 수명은 늘어가는데 책의 수명은 갈수록 짧아진다고 할까.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개탄하는 사람이 장서가 이규용(58) 씨다. 그는 책을 읽지도 않고 헌집짝처럼 버리는 세태 속에 보란듯이 ‘고서들의 과거사’라는 이름의 애장서책전을 가졌다. 전시가 막바지에 달할 무렵인 지난달 7일, 정동 경향갤러리에서 그를 만났다.



렸다. 첫 권 앞에는 월탄 선생의 휘필과, 함께 참여한 운보 김기창 화백의 그림이 실려 있다. 이는 '까까머리 고등학생'이었던 그가 대가들을 직접 찾아가 받은 것이다. 그만큼 수제본 <월탄 삼국지>에 가진 그의 애착은 각별하다.

미대를 다니던 무렵 크로키를 위해 모아두기 시작한 《PLAYBOY》 달력도 1969년부터 올해까지 소장하고 있다. 외설물로 분류돼 단속의 대상이었던 탓에 헌책방에선 숨겨 놓고 단골들에게만 '은밀히' 보여지던 것이 지금은 누드 모델의 변천사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다.

그에게 잠시 사진촬영을 부탁하자 "사람보다 책이 주인공인데..."하며 책 하나하나에 대한 꼼꼼한 설명을 빼놓지 않는다. 자신보다 더 좋은 주인이 나타나면 아쉬운 마음 버리고 선뜻 책을 내줄 수 있다는 그의 말 속엔 새로운 장서가들의 등장을 고대하는 간절한 바람이 숨어 있다.

『고서는 귀한 지적 자산... 수집·관리에 정책적 배려와 지원 있어야』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고서를 모으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책을 수집하다보면 비용과 공간면에서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기증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곳도 없고 받아준다 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책들만을 선별해 갑니다. 하긴 인터넷 시대에 누가 헌책을 쌓아놓고 그 좁은 방에서 새우잠을 자겠습니까. 이런 고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진열하면 교육과 관광자원으로도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국립도서관 고서들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 그때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 훈증소독을 통해 책 먼지를 없애고 종이를 중성화시켜 부식을 막는 데 비해 자신이 가진 책들은 그런 '호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통과정의 수명도 그렇지만 책 자체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모든 장서가들의 공통된 바람이다. 이씨는 "고서야말로 시대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지적유산인데 모으고 소장하는 사람 혼자만 애쓰고 있다"며 "그런 무관심 속에서 우리 문화재가 하나둘씩 사라지는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나마 이번 전시회에 도서애호가와 각계 전문가 등 많은 관람객이 다녀감으로써 모처럼 관심을 불러일으킨 게 성과라면 성과다.

"전시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많은 책들을 내놓지 못해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요. 지난 10년간 국내 화가들의 전시회를 다니면서 모은 화집도 이번엔 전시하기엔 여건이 맞지 않아 미술관련 전시회를 하게 되면 그때 내놓으려고 해요. 또 한국일보에 정치만화를 연재한 우리나라 만화가 1세대인 옹호 김규택 선생의 작품을 영인본으로 만들 계획도 있습니다."

그는 이번 전시 기간에 윤구봉 시인으로부터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았다. '옛 고'자와 '뜯 윈'자를 써 고원古原이라는 호를 받은 것이다. 고서를 모으는 데 여념이 없는 가운데 항상 옛 뜯을 거닐 듯 살고 있는 그에겐 더없이 알맞는 셈이다. 고원 이규용, 행사 막바지에 접어든 전시장을 둘러보는 그의 표정엔 고서에 대한 더할 수 없이 진한 애정이 배어났다. **☞** 취재 | 홍이현기자 · 사진 | 박신우기자



좌 <愛藏書冊展 古書들의 過去史>연 장서가 이규용 씨
위 이씨에게 고서들의 과거사는 지적자산이다.